

새만금개발 가속화 전략 머리맞대

전북도,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의지·공공주도매립
인프라 조성 등 강조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양재 원광대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만금의 개발 가속화 전략을 마련

하고자 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새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과 세계잰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도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신규 공기업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으로 국가재정부담 경감과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인 공공주도 매립이 가능하며 SOC 구축에 국가의 직접투자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2023 세계잰버리 유치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 환경해권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국가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비를 제대로 투입하여 국책사업으로서 기본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토론)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시 새만금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금출자 규모가 매우 중요하며 자본금의 확보가 새만금개발 속도와 비례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토론)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은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8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토론)은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제한 기술작업이 가능한 특별구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는 정부부처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과 2023 세계잰버리 준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하는 자리가 됐다.
/김진성 기자



삼락농정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 6일 도청 로비에서 전북도와 삼락농정위원회 주최로 지난 1년동안 각종 평가등에서 수상하거나 인증받은 농업인, 농특산물 브랜드, 농어촌미음등 수상작을 한자리에 모아 '삼락농정 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 열고 송하진도지사과 삼락농정위원회 및 수상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전북, 닭 질병전파 원천 차단

검사 강화로 건강한 병아리 생산... 농가소득 증대 기대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관내 종계장을 대상으로 닭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를 매년 실시한다.
추백리 가금티푸스는 제 2종 가축 감염병으로 어린 병아리에서 백색설

사 성계에서는 침울, 사료섭취 감소, 산란율 감소, 폐사 등이 주증상이며 농가에 발생시 큰 피해를 야기하는 질병이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종계장·부

화장 방역 관리 요령"에 따라 1회만 실시하던 검사를 16주, 36주, 56주 3회로 강화하고, 양성률이 30%이상인 계사를 양성으로 판정하던 기준을 10%로 강화 하여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6년도에는 도내 143농가 535계군을 2017년도 현재 132농가 497계군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각각 실시했다.
검사 결과 2016년도에는 2개 농장 3개의 양성계군을 검출 38천수를 도태 처리했다. 2017년도에는 검사횟수와

양성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양성 농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난계대 전염병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질병전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유도 양계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를 감소시켜 식육내 잔류항생물질에 대한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지지율 70% 회복

민주당 지지율 2.5%p 상승한 51.7% 1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정상회담과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두 달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중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70.3%로 지난주대비 3.1%p나 상승하며 70%대에 재 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긍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46.5%, '잘하는 편이다'는 23.8%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1%p 떨어진 2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한다'는 비율은 12.7%, '잘 못하는 편이다'는 11.2%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지난주와 같은 5.8%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의 결과'가 발표되고,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 효과로 이달 초 69.4%까지 올랐다. 청와대가 인도

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정상외교 일정을 발표했던 지난 2일에는 일간 지지율이 70.4%로 70%대에 첫 진입했으며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공개되자 71.7%까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51.7%로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2.5%p 뛰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감동으로 2.1%p 떨어진 16.8%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0.1%p 오른 6.0%로 회복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1.2%p 오른 5.9%, 바른정당은 전당대회와 분당 위기 속에 0.1%p 오른 4.8%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번 집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4086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2533명이 답을 해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시스

도의회 문건위, 내년도 예산 현미경 심사 예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현완수)는 6일 문건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 실·국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원들 간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해 집행부 견제이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2018년 본예산(안)은 현미경 심사, 핀셋 심사를 통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행자위, 본예산 심사대비 연찬회 실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철)는 이번달 8일부터 개최하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 대비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2일간 진안에서 내실 있는 의원 연찬회를 6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 기간에 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분야별 질의방향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행감 자료에 대한 분

석 및 토론이다.
또한 2018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실국별 신규 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철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18 본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